

베트남 경제 발전의 정치 동학 (1976-1997)*

김종욱**

I. 서론

1990년대 말 베트남도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 침체는 1998년에 더욱 악화되어 그동안의 베트남 특유의 경제 성장과 정치 안정을 급반전시켰다. 1998년의 수출 증가율은 3.5%로 1997년의 24%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고 외국인 투자액도 이전의 1/10 수준에 그쳤으며 신규 투자는 거의 없었다(Sidel 1999: 90). 과거 10여 년 동안의 연 평균 성장률은 8%를 기록하였으나 1997년에는 4%선에 그쳤다. 1997년과 1998년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베트남 국가은행(Vietnam State Bank)과 관련된 금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재정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수출과 외국인 투자 감소, 외채 등으로 인해 외환 보유고에 심한 압박을 받기도 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에 따르면 1998년 베트남의 외화 보유고는 20억 달러였으나 두 달 내로 돌아올 단기 외채는 25억 달러였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과 정부는 9월에 법령을 통해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지원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2-BL2058)

** 청운대 베트남학과 조교수. jokim@chungwoon.ac.kr

기업들로 하여금 소유 중인 외화의 80%를 국내 화폐인 동(Dong)화로 태환하도록 하였다(FEER 2000: 165). 비록 외채의 대부분이 불환 화폐(inconvertible currency)로써 채무의 상황이 절박하지는 않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외채는 주변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의 기반을 위축시키고, 특히 사회주의 통제 경제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은 그동안의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 정책과 관련된다. 실제로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 침체는 이미 1996년에 개최된 제8차 전당대회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당 지도층은 수출이 이미 감소세를 나타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없는 국영기업(State Owned Enterprises, 이하 SOEs)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전까지는 GDP의 40%를 국영기업 활성화에 지원하였으나 1996년에는 GDP의 60%까지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Womack 1996: 83). 1997년과 1998년 두 차례의 금융사건 역시 당이 관료주의적 재정 시스템 사용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원인이었다. 사건은 고위직 은행관계자의 무분별한 대출 비리로 인해 발생하였으나 그 배경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관치 금융 체제가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베트남의 경제 위기는 근본적으로 재통일 이후 사회주의 경제 개발과정에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의 정책 결정이 적절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 공산당의 정치 과정을 경제 발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콜코는 정치 문화론적 입장에서 베트남이 재통일 이후 많은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물질적 토대 구축의 노력이 오히려 당원과 대중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베트남 정치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공산당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고, 심지어는 당의 내분을 무마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던 만장일치 집단지도체제의 운영방식까지 위협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Kolko 1997).

또한 포터는 베트남 경제 개혁과 관련된 공산주의 정치체계의 내부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그는 베트남 공산당의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체계와 경제의 상

호 연관성은 오랜 베트남의 문화와 정치사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정치체도와 지도자 선출 및 정책 결정 그리고 대중의 정치 참여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75년 이후 발생한 국내의 사회 경제 위기는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정치구조와 연관이 있으며, 정치적 독점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경제지배가 베트남 사회주의 혁명 자체를 침식하였다고 주장하였다(Porter 1993).

한편 베트남 학자인 판 쑤언 딘은 베트남 문제에 대한 최근의 연구가 1986년 도이 머이(Doi Moi)이후의 경제 개혁 과정에만 치중하고 정치 제도적 변화 과정은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990년 말 베트남이 직면한 경제, 정치, 사회 문제들은 그 동안 당과 정부가 안일한 개혁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동시에 베트남 정치 체계내의 갈등, 시행착오 만회 식의 정책수행, 능력있는 인적 자원의 결핍 등도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Quan Xuan Dinh 2000: 360).

이러한 연구 노력들은 최근 베트남 정부가 공개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그 동안 다룰 수 없었던 정치문제와 경제문제의 상관관계를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주로 1990년대 이후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룸에 따라, 최근 베트남 공산당의 경제 위기와 관련된 정치적 정통성의 동요가 어떤 역사적 뿌리를 지니는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 연구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자 최근 베트남의 경제 위기와 관련된 정치 영역의 문제점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베트남이 재통일 이후의 공산당 정치 체계내의 리더쉽, 조직, 의사결정과정 등의 정치적 변동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이 글은 1976년 재통일 이후 베트남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착수한 때부터 1997년 경제 위기가 발생한 시점까지를 다루고자 한다. 한편 당의 정치 변동이 시기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경제 개발에 미친 영향을 크게 정치 변동이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시기와 역으로 정치 변동이 경제 저 발전을 초래하였던 시기로 나누었다. 전자는 다시 정치가 저발전 상태에 있던 경제를 발전

상태로 끌어내는 경우와 이미 발전 상태에 있는 경제를 계속 성장하게 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 후자는 발전상태에 있는 경제를 저발전상태로 끌어 내리는 경우와 이미 저발전 상태에 있는 경제를 계속 침체 국면에 놓이도록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경제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친 정치변동을 크게 침체기(1976-1981), 자극기(1982-1985), 유지기(1986-1995), 퇴행기(1996-1997)의 4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I. 침체기와 정치 동학(1976-1981)

재통일이후 처음 개최된 제4차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지도층은 통일 베트남의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 발전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¹⁾ 그러나 이 과제들은 오랜 전쟁의 후유증과 통일 국가 경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당과 정부 지도층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 결과 1970년대 말까지 베트남 경제는 저발전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경제 인프라의 파괴, 황폐해진 농지, 캄보디아 및 중국과의 무력 충돌 등은 새로운 국가 경제 건설에 집중해야 할 국가 예산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남북간의 서로 다른 경제체제의 경험은 통일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당 지도층은 국면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제공하지 못한 반면 전쟁의 승리에 대한 자만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에 빠지도록 하였다.

북부 지도층의 남부에 대한 급속한 사회주의화는 혼란을 초래하였다. 농업

1) 베트남 사회주의 건설의 목표는 새로이 흡수된 남부지역의 경제 체제를 사회주의화하는 것이었으며 경제 개발의 주요 과제는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복구하고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베트남 공산당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다. 두 차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6-1980, 1981-1985)을 통해 당과 정부 지도층은 남부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사회주의화하는 것과 통일 베트남을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새로운 전장(戰場)으로까지 간주하였다(Pike 1977: 37).

집산화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저항은 주식인 쌀의 생산량을 급감시키는 식량 위기로 나타났다(Pike 1978: 68). 1980년까지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려던 계획은 1979년에 240만 톤의 쌀이 모자라게 되면서 무산되었다. 기존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없애고 사회주의 경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시행되었던 토지 국유화, 재산 몰수 및 화폐 개혁 조치는 중국계 화교와 남부 베트남인 중산층의 국외 탈출을 야기하였다. 1979년까지 약 25만 명이 주로 해로를 통해 베트남을 탈출하였고 이로 인해 과거에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경공업, 광업, 어업, 상업 부문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건설한다는 과제 역시 난관에 부딪혔는데 농업 생산량의 급감과 경공업, 상업의 낮은 성장률을 만회하려는 각종 재화의 수입은 심각한 무역 역조와 외채 증가를 가져왔다. 1976년의 경우 총 수출이 1억 7천만 달러였던 반면에 수입은 10억 달러를 기록했고 1978년 초에 이미 12억불의 외채를 들여왔다. 그 결과, 베트남 국민 총생산(GNP)의 성장률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국민 소득도 나아지지 않았다. GNP의 경우 1976년의 9%에서 1977년에는 2%, 1978에는 2.3%의 성장에 머물렀고 국민 개인당 소득은 약 170달러로 1960년대의 수준이었다. 통일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 개발이 이처럼 실패한 데에 관하여 연구자들은 잇단 자연재해, 오랜 전쟁의 후유증, 중국으로부터의 원조 중단 등을 추가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1. 침체기와 당 리더십

1976년 재통일이후 베트남 공산당 내에서는 경제 발전을 책임질 세대교체가 진행되었다. 당 중앙위를 중심으로 원로 간부의 퇴진과 신진 간부의 등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4차 전당대회에서는 1960년 제3차 전당대회이후 전쟁 등의 이유로 꺾석중인 15명의 보궐을 포함하여 133명을 새로이 선출하였다. 이 가운데 원로 위원이 23명으로 17%를 차지한 반면 중앙위 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64세였다. 또한 중앙당에서 정부 및 군 출신 간부의 비율이 적어

진 반면 지방소재 당과 정부 기구에 소속된 간부들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당 중앙위 전체위원 가운데 중앙의 당과 정부 관리가 55명으로 42%, 지방의 당과 정부 관리가 34명으로 26%, 그리고 군 출신이 21명으로 16%를 차지하였다. 이는 1960년 제3차 전당대회에의 경우, 중앙의 당과 정부 관리가 46%, 지방의 당과 정부 관리가 11%, 군 출신이 15%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통일 이후 당 지도층은 전쟁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체질 변화를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Thayer 1988: 187).

당 중앙위 위원의 승진 및 자격을 놓고 보면, 정 위원으로 재선된 사람이 34명으로 전체 가운데 26%를 차지하였고, 후보위원에서 정 위원으로 승진한 사람이 11명으로 8%, 정 위원으로 처음 선출된 사람인 56명으로 42%, 후보위원으로 처음 선출된 사람이 32명으로 24% 각각 차지하였다. 이를 볼 때 처음 중앙위에 속한 사람은 총 88명으로 약 66%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1960년 개최된 제3차 전당대회에는 중앙위 위원수가 75명이었고 재선된 정 위원 19명으로 25%, 승진자가 10명으로 13%, 초선 정위원이 17명으로 23%, 그리고 초선 후보위원이 29명으로 39%를 차지한 것에 비하면 양적으로 비대해졌음을 알 수 있다(Thayer 1988: 182).

그러나 이와 같은 당 지도층의 변화는 재통일 이후 최초단계의 경제개발 과정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즉, 지도층의 숫자적인 구조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1세대가 핵심 결정권자로 남아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요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남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냄에 따라 국가가 직면한 새로운 환경에는 역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1976년 이후 경제 수위에 대한 예측의 오류, 남부 농업 집산화에 대한 지나친 속도의 강조, 국내 상업 및 분배 시스템에 대한 의도적인 파괴, 화교 및 중산층에 대한 지나친 탄압 등 당 정치국과 중앙위 지도층에 의한 경제 리더십의 실패가 70년대 후반부 경제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Pike 1981: 85). 자본주의 경제이론이나 시장경제의 기능에 대해 교육받거나 지도경험이 없던 보수 이데올로그들은 과거 자본주의 경제를 경험한 남부 베트남을 흡수한 통일 베트남의 경제 정책

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기력하였던 것이다.

이들 최고지도층이 지닌 계급투쟁 이데올로기는 베트남이 재통일된 이후 남부 베트남을 같은 민족으로 포용함에 있어 한계와 혼란을 초래하곤 하였다. 당내 원로 지도자 가운데 일부는 남부 경제의 사회주의화와 통일 국가의 경제 건설 임무에 중책을 맡았음에도 모순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태를 어렵게 하곤 하였다. 한 예로, 또 흐우(To Huu)는 남부의 사회주의화를 담당할 당 지도력의 확립과 관련하여 남부 당 간부를 충원할 때 '과거 남베트남 정권에서의 경력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지시하면서도 동시에 북부 당 지도층이 '남부 당원 충원에 대해 경계심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하였다(Donnell 1980: 25).

2. 침체기와 당 조직기구

1976년 이후 베트남은 정치 제도상의 변화를 겪었다. 통일 국가가 구성되어 전국 81개 지역구에서 605명의 후보가 추천되었고 그 가운데 492명이 4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곧 이어 제6대 국회가 6월 24일부터 1주일간의 회기를 통해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뽑힌 36명의 헌법초안위원회가 새로운 통일 헌법을 만들기 위해 소집되어 당 원로인 쩌엥 쩌(Truong Chinh)가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 부처 가운데 5개 부처가 신설되었고 지방 행정 제도가 개편되어 61개 띠(tỉnh 省)이 35개로 통합되었으나 과거 베트남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이하 DRV)의 관리 대부분이 그대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이하 SRV)의 관리로 재등용되었다. 이처럼 정부 조직은 비교적 제도 개혁이 활발하였던 반면에 당 조직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Pike 1977: 39).

베트남 공산당은 통일 이전에 갖고 있던 조직을 대부분 존속시키면서 최고 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²⁾ 또한 항불(抗佛) 전쟁시기부터 이어져 내려오

2) 공산당의 조직은 정치국, 서기국, 중앙위원회로 나뉜다. 이 중에서 중앙위원회는 당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다. 이는 위원회(uy ban, committee), 사무처(ban, commissions),

던 노동당내의 부서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여 통일이후 남부 베트남의 경제 개혁을 수행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 당 지도층은 당내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전문가를 충원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공산당 내에 정치국이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 집중제가 그대로 답습되었던 반면에 남부 베트남을 개조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경제 현안을 적절하게 다룰 수 없었다.

3. 침체기와 당 의사결정과정

재통일이후에도 베트남 공산당은 경제 정책을 포함한 국가 정책에 대한 모든 사안을 결정하였다. 사회주의 정치 체계의 민주 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에 따라 그 과정은 중앙과 지방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임위원회 등을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서 결정되었다.³⁾ 전당대회가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한다면, 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상임위원회는 전

사무국(*van phong, offices*) 그리고 기타 기관 등으로 나뉜다.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중앙감찰위원회, 당 중앙사무국, 당 서기사무국, 중앙조직사무처, 중앙국내정치안보사무처, 중앙대외사무처, 중앙내정사무처, 중앙대중동원사무처, 중앙경제사무처, 중앙사상문화사무처, 중앙과학교육사무처, 대외 당 연락사무처, 중앙재정경영사무처와 당 기관지인 *년 전* (*Nhan Dan* 人民), 당 학술지인 *땀 짜 콩 썬* (*Tap chi Cong San* 共產雜誌), 국립 호찌민 정치학술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찌민 사상연구소, 호찌민 청년공산당, 국립정치출판사 등의 기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Sidel 1997: 483).

- 3)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면, 전당대회 개최 6개월 전에 당 지도층은 정치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문서 초안들을 우선 지방의 당 기구에 보낸다. 그 전에 당 최고 지도층간에는 초안 작성의 내용에 대해 세력 다툼의 과정도 거치게 되는 데 이 단계가 지나면 지방 당 기구가 단위 별로 거치면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이 작업이 끝나면 지방 기구 선전반이 검열을 거치는데 여기서 지방 당의 서기국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첨삭하여 중앙당으로 보고한다. 당 중앙위에 접수되면 중앙 사상문화사무처에서 한 번 더 검열한 뒤에 관행대로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2달 전에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사전 공시된다. 이 합의과정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전당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경제 정책을 비롯한 모든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게 된다.

당대회에서 결의된 내용들의 수행과정에서 비롯된 세부 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특히 중앙위원회는 전국의 당 지부에서 파견된 전당대회 대표자 가운데 소수가 선출되어 일년에 두 차례씩 총회를 개최하였다. 정치국은 이 과정에서 당의 최종적인 토의와 결정기관으로써 약 18명을 전후한 위원이 선출되며 정치국내 상임위원회는 핵심기구로 정치국을 대표하여 일상적인 정책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Quan Xuan Dinh 2000: 364).

그러나 당은 이 같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만장일치와 비밀주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였다. 1930년 베트남에서 공산당이 설립된 이후 집단주의적 지도체제의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은 계속 지켜져 왔다. 전당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비록 특정 사안에 대해 각 파벌간의 경쟁과 대립이 전개되고 각 단위의 당 기구를 거칠 때마다 치열한 논쟁과 의견 침묵에 오랜 시간이 지체될지라도 전당대회가 폐회될 때는 정치와 경제 보고서에는 집단주의적 합의가 항상 이루어졌다. 한편 당내에서 대립과 합의의 의사결정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와 그 과정이 소수 최고 지도자에 의해 독점됨에 따라 각 파벌간의 불신과 권력 수단의 독점을 위한 과열된 경쟁을 동반하였다.

제4차 전당대회에서도 이 같은 정책결정과정의 전통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통일이후 새로이 국가 경제에 포함된 남부 농촌지역에 대한 사회주의적 집산화(集産化)와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당 중심의 비밀주의적 만장일치체는 당이 보다 다양한 대안을 심의하여 채택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하였다. 또한 당시 전당대회에서는 그 속도와 방식을 놓고 파벌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주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집산화를 주장하는 이념주의자와 통일 베트남의 건설을 고려한 점진적인 진행을 주장하는 실용주의자간의 대립은 농업우선전략을 주장하는 진영과 공업우선전략을 주장하는 진영간의 대립과 얽혀 정치국내에 보 쯔 쑹(Vo Chi Cong)과 레 타인 응이(Le Thanh Nghi)가 중심이 된 세력과 레 주언(Le Duan)과 팜 판 동(Pham Van Dong)이 주도하는 세력간의 깊은 대립을 드러냈다(Vo Nhan Tri 1988, 79).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각

과별간의 오랜 갈등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층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1980년까지도 구체적인 노선을 정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국가 경영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 예로 1979년 8월 당 중앙위가 제6차 총회를 통해 당이 주장해 온 공업우선전략을 버리고 수공업, 경공업과 함께 농업에 다시 최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더욱 악화되었다.

III. 자극기와 정치 동학(1982-1985)

1980년대에 들어서도 베트남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심한 저발전 상태로 남아있었다. 1979년 당 중앙위는 제6차 총회에서 채택된 생산동기 부여제(production incentive system)와 생산물 계약제(product contract system)와 같은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적용하였으나 식량의 자급자족은 여전히 불가능하였다. 인플레이션은 전쟁 당시처럼 폭등하여 1983년에는 연 90%를 기록하였고 식량 생산이외에도 원유생산, 비료, 공업 원자재, 생필품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경제 저발전의 상황은 물질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사회 심리적 영역에 까지 피해를 주었는데 1976년 이후 수행해 온 사회주의 경제 건설 계획이 실패했다는 자괴감으로 공산당 정권에 대한 희망과 기대도 무너져 갔다(Pike 1982: 70). 1983년 초에는 외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미화 53억 달러로 되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84-1988기간 중 갚아야 할 외채의 이자만도 2억 5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동안 총 경상수입액과 비슷한 액수였다(Chanda 1984: 29).

사회 분야에서도 위기 상황은 지속되었는데 식량 생산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함에 따라 국민의 생계 보장, 의료 지원, 의복 및 기타 보조금 지급이 차질을 빚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남부 베트남 중산층과 화교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탄압이 계속되었고 남부 베트남의 종교 및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공산당

과 정부 당국의 적대적 조치가 이어졌다. 산악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착취와 탄압은 그들의 반란을 가져왔으며 경제 불황과 탄압조치는 남부인들의 해외 탈출을 재촉하였다.

캄보디아 침공과 중국과의 국경분쟁은 경제 회복에 대한 또 하나의 악재로 나타났다. 10만 명이상의 파병은 국내 생산노동력의 공백상황을 가져왔고 전쟁 수행의 비용과 캄보디아 주둔군을 위한 비용은 경제 개발에 투입될 자금을 빼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⁴⁾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지만 침체에 빠진 경제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예로써, 베트남 당국이 1979년에 캄보디아를 무력 옹징하고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감행하는 외증에도 당 중앙위 6차 총회에서 결의한 생산물 계약제와 생산동기 부여제가 1982년 제5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되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1-1985)에서는 농업우선전략이 채택된 점은 당 지도층의 정치 발전을 보여준 것이다.

1. 자극기와 당 리더쉽

1980년대 베트남 공산당은 당 리더쉽의 체질 개선을 위한 자구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비록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17명의 위원이 주도하고 집단주의적 리더쉽의 원칙이 고수되었으나, 당 정치국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경직된 정국에서 당 리더쉽의 변화를 통한 지도력의 발전을 모색하였다.

4) 두 차례의 전쟁이 베트남 지도층에게 안보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군부세력과 당내 보수 세력들로 하여금 경제 개방과 정치 개혁에 제도 요인이었는지의 여부는 논란거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두 차례의 전쟁은 결코 베트남의 자주 독립권을 위협하는 변수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는 베트남을 선제 공격한 캄보디아의 폴 포트도 베트남 점령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고 중국 역시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에 대한 옹징 차원에서 국경선 분쟁을 주도한 것임을 볼 때 분명하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군사적 행동이 뒤따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충분히 대비함에 따라 이 문제가 국내 경제 부흥과 새로운 국가 건설에 결코 치명적일 수 없었다.

우선 당내 지도층의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당 정치국,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에 속한 경제 관련 부서, 국내 치안 담당, 군부 출신의 고위 관리 가운데 20명 이상을 해직, 전근, 정년퇴직시켰고 조직의 통폐합과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다(Pike 1981: 88). 제5차 전당대회에서는 정치국원의 대대적인 교체도 이어졌다. 레 주언(Le Duan) 서기장을 비롯한 원로 정치국원 5명이 유임된 반면 보 응우옌 잡(Vo Nguyen Giap) 장군 등 6명의 원로가 경질되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경질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치국원의 자격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예우차원에서 보장하던 당 서기국원의 자격과 당 중앙위 위원의 자격까지 모두 박탈하였다. 당의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였다(McWilliams 1983: 63).

제5차 전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의 인사 교체도 있었다. 제4차 전당대회 때 133명이었던 당 중앙위 위원이 제5차 전당대회에서는 152명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는 원로 위원이 23 명으로 15%를 차지하였고, 집단별로 보면, 중앙의 당과 정부 관리가 64명으로 42%, 지방의 당과 정부 관리가 45 명으로 30%, 그리고 군 출신이 20명으로 1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구성을 제4차 전당대회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당 중앙위원의 숫자가 약 14% 증가하였으나 당 원로의 비중이나 중앙의 당 및 정부 간부와 군 간부의 구성비율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Thayer 1988: 187). 그러나 당 중앙위 위원들의 승진 여부를 볼 때, 정 위원으로 재선된 경우는 65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였고, 후보에서 정 위원으로 승진한 경우가 21명으로 14%, 정 위원으로 처음 선출된 경우가 30명으로 20%, 후보위원으로 처음 선출된 경우가 36명으로 24% 각각 차지하였다(Thayer 1988: 182). 과거에 비해 정 위원으로 재선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제4차 전당대회 때보다 당 정치체계가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공산당 정치 리더쉽의 발전은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 지도층 소장파의 등장은 식량생산과 관련된 각종 경영관리정책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보장하는데 기여

하였다. 1980년 당 중앙위 예하 기구의 수백 명에 해당하는 젊은 간부들은 1979년 당 중앙위의 제6호 결의안과 1980년 2월의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반대 하면서 현재 만연된 경제 침체는 보다 더 근본적인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 당 고위층의 미시적인 정책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Pike 1981: 89). 1982년 3월에 개최된 제5차 전당대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6-1981)이 실패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McWilliams 1983: 62).

이것은 오랫동안 불가침의 권한으로 여겨졌던 당 통제력과 정치국의 최고 권한이 지속적인 경제 저발전 상태로 인해 내부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당내에서는 집권 세력에 반동적 성향을 지닌 세력이 경제 정책과 관련된 당 최고지도층의 인식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당내 하부 관리들이 의식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소장파 간부들의 밑으로부터의 노력은 경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공산당의 리더쉽 변화는 당 최고지도층의 보수 강경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개혁파가 점차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보 응우옌 잠 장군을 포함한 당내 강경파 이데올로그들이 퇴장하고 보 반 끼엣, 도 무어이(Do Muoi), 레 득 아인(Le Duc Anh), 응우옌 득 탐(Nguyen Duc Tam), 응우옌 켜 타익(Nguyen Co Thach), 동 씨 응우옌(Dong Sy Nguyen) 등 비교적 젊은 개혁파가 정치국에 합류하였다. 그 결과 제5차 전당대회는 1979년 9월 당 중앙위에서 정한 시장경제체제를 향한 개혁을 지속하고 농업과 공업 부문의 생산동기 부여제와 생산물 계약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분명하고 신속한 합의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 예로 일부 당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로 정치국원인 팜 반 동(Pham Van Dong)은 남부 베트남의 사회주의화와 관련하여 생산력의 저하를 초래하면서까지 사회주의화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당이 주도하는 생산 분배의 계획 기

능을 축소하도록 하였다. 한편 당내 경제 지도자들은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너무 이상적이었음을 지적하고 1985년까지의 경제 달성 목표를 하향 결정하여 침체 경제를 회복하고 당과 정부의 경제 개혁 수행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는 재통일 이후 당내의 보수진영이 사회주의 건설과 공업우선전략의 채택으로 인해 재통일의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이해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는 합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었다.

2. 자극기와 당 조직기구

빠른 경제 회복을 원했던 당 지도층의 변신은 당 조직의 기능 세분화에서도 보였다. 국가 경제개발 정책을 포함한 모든 주요 현안에 그동안 당내 정치국, 정치국 상임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주도하던 일들이 정부, 국회, 대중 조직, 지방 행정 당국로 분담되었다(Thayer 1988: 60). 1982년 3월에 개최된 제5차 전당 대회는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구성된 중앙위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과거 위원들이 단지 정(full)위원과 후보(alternate)위원으로 구분되었던 반면 제5차 전당대회에서는 정 위원을 7개의 분과로 나누었고 후보 위원은 5개의 하부집단에 소속시켰다(Thayer 1988: 177). 이는 과거에는 유례가 없던 것으로 베트남 정치 리더쉽을 구조적으로 재편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다. 즉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전시체제와 같은 일원적 기구로서는 통치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당 중앙위 위원들에게 직능대표의 역할 권한을 위임하려는 결단에 근거한 것이었다.⁵⁾

공산당 스스로가 이전까지의 집중된 권한을 포기하고 권력 분산에 적극적으로 있었던 분위기는 국회 기능의 격상이라는 상황과 함께 나타났다. 이전까지 당

5) 이때 당과 정부 조직의 분권화 및 전문화는 곧 다가올 제6차 전당대회에서 쩌엥 쩌(Truong Chinh), 팜 반 동과 같은 혁명 1세대의 퇴진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위원회 고문위원제도의 신설과도 관련이 있었으나(이한우 2000: 151), 이는 결코 그들을 각종 현안에 책임 있는 원로 지도자로 추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의 하부 기관으로 대중 여론을 형성하고 당의 정강과 정책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던 도구적 지위에서 벗어나 1980년대 중반부터 국회는 당이 담당하지 못하는 정책 입안과 수행 업무를 대신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독점적 정치 조직 구조에서 국회가 적지 않은 책임과 권한을 누리는 분권화 과정이 이루어졌다(Pike 1992: 76). 또한 베트남 인민군에 대한 당의 역할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당 조직 내에 군 출신의 간부를 배제하였으며 1983년 당 중앙위는 총회에서 당내 모든 군사관련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군 인사와 관련해서는 당 정치국과 서기국이 사단장급 이상의 군 최고 지휘관과 정치장교의 임명에 동의만을 하도록 하였다(Chanda 1984: 33).

당은 경제 발전 문제에 관해서도 권한을 지방의 당 기구로 분담시켰다. 1981-1982년 띠엔 킴 전당대회에서 야기된 과열된 논쟁은 전국규모의 제5차 전당대회의 개최를 지연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당의 위상을 손상시켰다는 부정적 평가이면서 지방 당 기구의 기능이 격상되었다는 해석도 가능케 하였다. 맥윌리엄스에 의하면 실제로 띠엔 킴 전당대회에서는 1979년 중앙위가 채택한 농산물 생산에 관련된 자유계약 시스템의 적용과 관련된 논쟁에서 지방 당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점 이외에도 띠엔 킴 당위원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McWilliams 1983: 64). 동시에 당은 지방 당 기구의 논쟁을 이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제5차 전당대회에서 빛어질 갈등과 대립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이점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당의 권한 이양은 여전히 침체기에 놓여있던 국가 경제 회복에 효과적이었다. 1985년 10월 당 기관지 띠엔 쯤 호찌민시 경상수입의 80%와 남부 지역 중소기업 경상수입의 70%를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또한 도시 노동자와 당 간부에게 지급되던 보조금을 폐지하고 월급도 현물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보도되었다. 이는 1985년 6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8차 총회에서 정부가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직접 책임지도록 한 결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베트남 언론들에 의해 '사회주의 과도기의 핵심적인 진보'로

평가되었다. 한편 8차 총회는 남부 농촌지역의 집산화가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였는데 이것은 중앙의 당 조직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정책이 가져온 결과였다(Duiker 1986: 109).

3. 자극기와 당 의사결정과정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여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려는 당의 노력은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함과 동시에 의견수렴과정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타났다.

우선 당은 혁명 1세대 및 원로 당원들의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였던 비밀주의 방식의 당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국가 안보상의 위협이 사라진 후의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개혁의 과정은 당과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더 이상 비밀주의 원칙에 묶어둘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국내 정치에서도 현존체제를 위협할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지도층의 의사결정과정은 점진적으로 그 동안의 관료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우선 당 조례에 대한 명문화 및 수정작업에 반영되었다. 예로, 1979년 당 중앙위 제6차 총회가 '결의안 10'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북부 지역 촌락의 5% 제례용 토지 사용권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는 당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과정과 농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 한편 당은 제6차 전당 대회를 준비하면서 혁명 1세대를 퇴진시키고 경제 개혁을 위해 응우옌 반 린(Nguyen Van Linh) 서기장과 보 반 끼엣 부수상의 등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당 기관지 년 전은 이 과정들이 매우 진보적인 여론 합의의 과정이었음을 시사하였다.

새로운 기구와 조직이 신설되고 분화됨에 따라 최종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드는 절차상 복잡함과 시간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당 간부와 관리에게 주어지는 참여 기회 또한 높아졌다. 베트남 공산당의 통치 역사상 최초로 경제 시스

팀의 붕괴와 관련된 공개 심의를 허용하였다(Pike 1981, 87). 당은 일반 국민들의 반사회주의적 의식이나 행동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데서 벗어나 이들의 불만과 예전의 '반동적' 행위를 일종의 여론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그동안 당 기관지로서 역할에만 충실했던 년 전, 땀 짜 공 산(Tap Chi Cong San 共產雜誌), 꾸언 도이 년 전(Quan Doi Nhan Dan 人民軍隊)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조심스럽거나 지도층에 대한 반감과 반정부 정서를 다루었다.

이러한 당내 의사결정과정의 발전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강경파가 퇴진하고 개혁파가 세력을 얻었고, 개혁파의 주도로 반개혁 세력과의 합의를 이뤄지면서 침체된 경제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농업, 공업, 상업 부문에 자본주의를 허용하고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포기하지 않는 점진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였다. 1984년 1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제7차 총회에서는 이러한 경제 계획을 구체화하였는데, 식량과 소비재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관료주의적 경영방식을 점차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농작물 생산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의 집단주의 농장을 변형한 농촌의 농공단지 설립안을 마련하여 1990년까지 전국 2만여 헥타르의 부지에 400개의 단지를 설립하여 10만 명의 농촌인구를 정착시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는 남부 베트남인들을 위한 사회주의 농공업 발전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진보'였다(Duiker 1986: 103).

IV. 유지기와 정치 동학(1986-1995)

1980년대부터 베트남의 경제 발전이 상승곡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생활의 고충이 해소되고 사회 내 다른 영역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베트남식 사회주의가 궤도를 잡았다는 낙관론도 대두되게 되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700%에 달하는 인플레이션과 1985년 화폐 개혁이후 계속 떨어지는 동(Dong)화의 가치, 남부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등의

불안정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1986년 5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제10차 총회에서 결정된 통제 경제의 자유화, 관료제의 기능 축소, 생산증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등은 기존 경제 방식의 개혁과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Esterline 1987: 94).

그러나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권이 법과 제도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정치 세력간의 투쟁과 합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려 했던 이 기간은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와 중국 천안문 사태를 전후로 상이한 전개 양상을 보이게 된다. 1992년 6월 베트남 공산당은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총회에서 당의 쇄신과 정돈(chinh don 整頓)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안의 골자는 사상의 쇄신, 당 조직의 개혁, 당 간부의 재교육, 리더쉽 형태의 변화를 통한 당 조직의 효율화,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통제 강화 추구였다(이한우 2000: 155).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붕괴와 특히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베트남 지도층은 도이 머이(Doi Moi 개혁) 과정상에 나타난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단속하려 했으나 이전까지 이룩한 경제 개혁의 성과와 경제 발전의 기본 노선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1990년대 초의 베트남 상황은 정권안보 차원의 정치적 규제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개방주의 정책과 탈권위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유지기과 당 리더쉽

오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약은 무엇보다도 공산당 내 핵심 지도층의 교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6년 6월 당 중앙위 제10차 총회에서는 그동안의 경제 정책의 실패를 추궁하면서 모든 경제 부처 장관을 경질하였다. 이에 앞서 2월초 국무 위원회는 경제담당 부수상 쩐 프엉(Tran Phuong)을 국가 보조금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물의에 책임을 물어 사임시켰다(FEER 1986/02/08, 12). 또한 7월 10일에는 당 서기장 레 주언의 사망과 함께 쩐 쩐,

팜 반 동, 레 득 토 등과 함께 남아있던 혁명1세대와 정통 이데올로그를 퇴장시켰다.

주목할 점은 이 조치는 당내 수구적 강경론자뿐만 아니라 개혁을 담당했던 인물도 포함함으로써 10차 총회는 개혁진영 중에서도 진보적 성향이 강한 세력이 득세하였다는 것이다. 예로써 유엔에 파견된 베트남 사절단의 대표였던 부이 쉐언 닛 (Bui Xuan Nhat)은 9월 30일 유엔의 한 회의에서 베트남은 걸론 3대 혁명 등의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다면서 개혁세력이 보여 왔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였다(Esterline 1987: 96).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6차 전당대회는 예상과는 달리 응우옌 반 린(Nguyen Van Linh)이 새로운 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당초 새 서기장으로는 중보 개혁 성향의 레 득 토나 팜 흥(Phan Hung)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당 지도층은 남부의 사회주의화 및 경제 개혁을 주도했던 응우옌 반 린을 선택함으로써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응우옌 반 린이 서기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남부 출신 당 간부들의 등용이 늘어났다. 즉, 제5차 전당대회의 경우, 중앙 당 출신위원이 42%, 지방 당 출신위원이 30%, 군 출신위원 13%를 각각 차지했으나, 제6차 전당대회의 경우는 중앙 당 출신위원이 32%, 지방 당 출신위원이 49%, 군 출신위원 7%를 각각 차지하여 중앙 당 출신위원과 군 출신위원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에 지방 당 출신위원은 19%나 증가하여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Thayer 1988).

이러한 교체는 국가 경제 부문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불안요인을 불식시키고 고도 경제 성장의 단계로 접어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방 출신의 젊은 당 간부가 정치국과 중앙위에 대거 등용되면서 베트남 경제는 개혁의 범위와 깊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한 예로써, 새로운 당내 실용주의적 경제 노선은 국영 기업 문제와 관련하여 이전에 국가나 중앙 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관리권과 독립권을 해당 기업체에 부여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영관리'정책을 실현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 지도층은 새로운 사회주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영기업 스스로 경상수지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Esterline 1987: 95).

그러나 경제발전을 담보할 당내 정치 리더쉽은 앞서 언급했듯이 1989년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시작된 1990년대의 정치적 암흑기로 인해 다소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반동은 결코 극단적 보수 지도층으로의 회귀라기보다는 급진 개혁파의 퇴진을 통한 보수와 진보간 호흡조절의 성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당 지도층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길 원하는 일반 대중과 당내 개혁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불안정을 초래할 만한 어떤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는 경제 개혁의 속도와 정치 다원화 노력을 촉구하는 일부 진보적 지도층에 대한 제재로까지 이어졌다. 1990년 3월 당 중앙위 제8차 총회에서 이루어진 진보주의 정치국원인 쩌 쉐언 바익(Tran Xuan Bach)의 해임과 당 중앙위로부터의 축출은 이 시기 당 지도층이 당과 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얼마만큼 우선시 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 조치가 젊고 새로운 간부들이 주도하는 경제 개혁과 성장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제6차 당 대회에 이어서 소집된 제8대 국회의 제9차 회의에는 1987년 4월에 선출된 총 496명의 대의원 중 460명이 참석하였고 당 지도부는 이 중에서 13명의 정치국원과 9명의 서기국원을 선출하였다. 이 대회를 통해 당은 과거 혁명전사 출신들을 대거 탈락시키고 새로운 젊은 지도자를 충원하였는데 평균 연령은 정치국원이 약 65세로 과거 제6차 당 대회의 72세보다 훨씬 젊어졌고(Pike 1992: 79). 이 중 5명은 50대 정치국원이었으며 최연소자는 52세였다. 제7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당내 중도세력을 대변하는 도 무어이 신임 서기장과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레 득 아인 국가 주석 그리고 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보 반 끼엣 수상이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여기서 다시 146명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이 가운데 30%가 신임 위원들이었다. 한편 이 당 대회에서는 22명의 국무위원중 보 응우옌 잡(Vo Nguyen Giap) 장군, 내무장관 마이 찌 토(Mai Chi Tho), 국방장관 레 득 아인(Le Duc Anh), 외교장관 응우옌 켜 타익(Nguyen Co Thach), 무역장관 호앙 민 탕(Hoang Minh Thang) 등 5명만을 교체하였다. 정치권에 냉기류가 흐르던 당시 상황에서 볼 때, 당의 인

사 정책을 통한 보수 세력의 복귀는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는 베트남 정치 개혁이 경제 성장에 의한 민주화 요구와 주변국들에 의한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시기에 당 지도층이 경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영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당내 보수 진영과 개혁 진영간의 경쟁관계와도 상관된 것이었는데 실제로 1991년에 개최된 제7차 전당대회 중앙위 위원들 중에는 많은 지식층과 기술 관료들이 기용되었다(Quan Xuan Dinh 2000: 366). 동시에 이는 제6차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도이 머이 정책이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초기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분석을 토대로 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였다. 새로이 기용된 기술 관료 출신의 당 간부들은 이후 경제 개혁의 확대, 정부내 경제 개혁을 위한 제도의 신설, 정통 보수 이데올로기의 약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유지기와 당 조직기구

1990년대 제7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당과 정부 조직에서 개혁집단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진 것이었다. 그것은 당 내부 조직 구도를 하노이 중심에서 지방 편 단위의 기구로 재량권과 책임을 확대하려는 방침을 발전시켰다. 당은 '2000년 전략: 사회 경제적 안정과 발전'이라는 계획아래 이 시기 베트남 사회가 직면한 사회, 경제, 교육, 외교 부문에서 야기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 발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개념을 적용하면서도 정치적 다원주의에 관한 논의를 배제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포함한 사회주의 건설은 정체 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베트남 정계가 정돈과 자숙(自肅) 운동을 벌이는 동안 국회가 이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위원회, 국무회의, 예하 기관 단체장의 선출; 보 반 끼엣 신임 수상에 의한 경제현황, 문제점, 해결책에 대한 보고; 정부 부처 및 국회 조직 개편과 관련된 헌법의 수정; 민법

과 형법의 새로운 제정 등 법무 행정 개편에 대한 관계 법령의 승인 등이었다. 즉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당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기능들이 국회로 많이 이전되었고 국회는 경제 개혁의 수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노선들을 실현하고 그것들을 입법화하여 성문화시켰다. 당 서기장인 도 무어이 자신도 국회의 변화된 직능을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국회는 헌법주의에 기초한 체계화된 정부를 조직한다. 둘째, 이전까지 당이 독점하였던 행정 관할권은 국회를 통해 정부로 이관한다. 그러나 이는 당의 직능이 완전히 국회나 정부로 이양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당은 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하면서 국회는 국가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각 정치 조직 간의 역할 분담을 피하는 것이었다. 즉, 이전까지 당, 정부, 국회간 국가 정책의 수립과 수행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었지 당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국회는 필요한 정책 수행의 방법을 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에 유례없던 국회의 정치권력이었다 (Pike 1992: 77).

3. 유지기와 의사결정과정

정치 개혁과 관련된 어떤 공개적인 토의도 금지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는 다시 전시체제처럼 경직되었다. 즉, 1980년대 말부터 경제 성장을 위한 정치 제도의 개선, 새로운 기술관료(technocrat)의 기용 등에 대해서는 보수와 개혁 진영간의 합의가 있었으나 공산당 일당체제 정권 수호에 대한 어떤 정치적 논의도 허용되지 않았다. 예로써, 제7차 전당대회는 다당제나 정치적 다원주의와 같은 정치적 변화에 대한 어떤 제의도 상정되지 않았다. 정치 개혁에 관한 토론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공개적이었던 반면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논의는 비밀주의와 파벌주의 전통에 의존하게 되었다. 당내에는 다시 노장과 대(對) 소장파, 기술 관료파 대 혁명 전사파, 자주 독립파 대 외세 의존파, 무사안일파 대 적극 행동파 등의 집단이 국내외 환경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의 과정

을 전개하였다(Pike 1992: 75).

이처럼 경제 발전을 유지하고 정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당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화가 담보상태에 빠지자 지난 6여 년간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정부내 경제 개혁 정책을 담당할 간부의 증원은 곧 보수 세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정치체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지도층의 강경한 이념성향은 1994년 정부 공무원 복무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 규정의 최초 취지는 경제 개혁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당 간부와 정부 관리들의 부패와 시장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내 인사조직 위원회(Government Committee for Organization and Personnel)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당 간부의 입지에 영향을 줄만한 이 위원회의 초안이 당내 중앙 인사조직 위원회(Party's Committee on Organization and Personnel)로 넘어가면서 결국 3년에 걸친 27번의 초안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었다. 이 경우는 문제의 핵심이 경제 개혁을 수행하는 당과 정부간의 주도권 다툼에 있었으며 이는 이 시기 베트남의 도이 머이 정책 수행과 경제 성장 발전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V. 퇴행기와 정치 동학(1996-1997)

1990년대 중반이후 베트남 정치계는 지속적인 경제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정치 발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1992년 이후 국가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8%이상을 유지하였다. 1997년 통계조사에 의하면 빈곤지수가 1993년의 58%에서 1998년에는 37%로 감소하였다(Quan Xuan Dinh 2000: 360).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체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이던 긍정적인 지표들이 1996년에 접어들어 반전되었다. 외국인 투자, 수출, 경제 성장률 등이 모두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으며 1997년에는 개방 정책의 수행 후 최초로 대형 금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그 동안 도이 머이 정책이후 사회 전 영역에서 나타났던 모순들이 동시에 드러나는 듯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측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당의 지도력과 정치는 없는 듯하였다. 1996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하노이에서 제8차 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특징은 지속적인 경제 개방화를 통한 공업화와 현대화의 추구 및 강한 국가와 공정하고 문명화된 사회주의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목표를 두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자체적인 체질강화를 통해 베트남 정치 및 경제 영역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실패하였다.

1. 퇴행기와 정치 리더십

베트남 공산당 제8차 당 대회에서 도 무어이 서기장, 레 득 아인 국가주석, 보 반 끼엣 총리, 농 득 마인 국회의장의 재선임은 국가 정치 리더십과 관련한 우려를 국내외적으로 불러 일으켰다. 특히 1996년부터 야기된 당 서기장의 퇴진론과 지난 5년간 정계를 이끌어 온 원로 3인의 최고 지도자들의 국가운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6월말에 결국 3인의 원로가 잠정적이거나 계속 국가 체계를 이끌도록 한 결정은 당 내외에서 세대교체의 요구를 불러 일으켰다 (Sidel 1997: 48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8차 당 대회 기간중 당 지도층에 대한 인사(人事)는 최고지도층의 재임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인물의 등용 및 세대교체를 병행함으로써 각별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우선 정치국은 정치국원의 수를 기존의 17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이 중에서 당 대회기간중인 6월 29일 사망한 응우옌 딘 뚜(Nguyen Dinh Tu)를 제외한 18명 가운데 10명을 유임시키고 8명을 새로이 선출하였다. 한편 1996년 제8차 당 대회에서 유임되었던 3명의 원로 지도자들은 1998년 제4차 중앙위 총회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이들보다 나이가 적은 인물들이 선출되었다. 레 카 피에우 서기장, 쩌 득 르엉(Tran Duc Luong) 국가 주석, 판 반 카이(Phan Van Khai) 수상은 흔히 당의 2세대 지도자로 불리는 3 거두의 퇴진과 함께 새로운

3세대의 젊은 리더십으로 등용되었다. 3 거두 원로 정치인의 유입으로 베트남 정치 개혁을 불안하게 보았던 서방 관측통들의 기우와는 달리 베트남 정계에서는 세대교체를 위한 물밑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다.

중앙위원회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당 중앙위의 각 위원회, 사무국, 기타 기관등 에서 대부분 책임자급 간부들이 재임용되지 않았다. 당 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약 60%가 새로이 선출된 대표인데, 이는 당 지도부를 젊게 만들려는 당의 노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의원 중에는 28세의 최연소 대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끌었다. 제8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구세대의 탈락과 신세대의 등용은 많은 주요 당직자의 세대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베트남이 사회 경제적으로 재도약함에 따라 정치 리더십도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였음을 나타내었다.

정부기관에도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등용되었는데 정부 각 부처의 장이 대부분 당 정치국이나 중앙위원회에 소속됨에 따라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제8차 당 대회는 대체로 젊은 장관들이 외교부, 내무부, 계획투자부, 무역부, 법무부 및 예하 단체에 등용됨에 따라 정부 기관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 내에서도 베트남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젊은 세대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도 리더십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국회 지도급 인사들이 당 중앙위원회에 들어갔다. 이전부터 차기 당 서기장 후보로 지목되어 온 국회의장 농 득 마인(Nong Duc Manh)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국회사무처장 부 마오(Vu Mao), 국회 상임위원 겸 법사위원장 하 마인 쩌(Ha Manh Tri), 국회 상임위원 겸 과학기술환경위원장 부 딘 꾸(Vu Dinh Cu), 법사위 부위원장 응우옌 반 예우(Nguyen Van Yeu), 사회위 부위원장 응우옌 티 호아이 마이(Nguyen Thi Hoai Thu)의 당 중앙위 진출은 베트남 정계에 국회의 기능상 비중이 증대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Sidel 1997: 495).

이처럼 당 지도층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전문 인력이 기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층간 이견(異見)과 분열 양상은 1990년 중반까지 고도경제성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과거에 비해 신세대 지도자의 대거 진출과 이들이 지닌 능력은 인정되나 그 가운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최고지도자의 부재는 당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점은 당내 의사결정체계와 상관되는 것이었는데 당내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존속과 민주 집중제의 원칙에 따른 만장일치 의사결정과정의 유지는 결국 경제 개혁의 노선과 방식에 대한 보수 세력과 개혁세력간의 타협과 합의를 최우선시하였고 이로 인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퇴행기와 당 조직기구

제8차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정치적 도약의 또 다른 모습은 당, 정부, 국회 등 주요 정치 조직의 제도적 변화이다. 이 가운데서도 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첫째, 제8차 전당대회는 그 동안 당내의 일상적인 국내 현안의 처리를 맡고 있던 서기국(Secretariat)을 폐지하고 당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를 만들었다. 그 동안 서기국은 일부 당 간부가 중요한 당 정책에 편중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Sidel 1997: 483).

둘째, 당내 새로운 핵심적 실체로 당 중앙위 위원 연합(Central Committee blocs)이 부상하였다. 비록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의 특수 이익을 위하여 제후한 몇몇 국민 단체의 민주 국회의 특수 문제에 관한 초당파적 의원연합과 제8차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당 중앙위원회 의원들의 개별적인 집단은 과거에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당내 파벌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특히 베트남 공산당이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당내 각 파벌이 주로 이념적, 외교적 문제를 중심으로 갈라섰다면, 당 중앙위내의 위원 연합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회 경

제 문제 등의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움직임으로써 당이 민생현안에 다가가는 실질적인 기구가 되도록 하였다.

당 중앙위원회의 제도적 발전 역시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 동안 소수 최고 지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당 중앙위의 정치과정에 비당원 전문가, 해외교포, 이익집단의 대표들을 포함시켰다. 이들의 활동은 이전의 전당대회보다 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음으로써 일반 대중에 가깝게 다가서는 당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예로써, 제6차 전당대회 때에는 단지 1개의 연설문이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게재되었으나 제7차 전당대회는 3개의 연설문이 게재되었고 제8차 대회 때는 6개의 연설문이, 또한 꾸언 도이 년 전 지(紙)의 경우에는 년 전지에 게재되지 않은 연설문이 실리기도 하였다(Stern 1997: 476).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층 내 보수 강경세력과 온건 개혁세력간의 이견대립과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의 적용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여가기 위한 궁극적인 정책 입안과 수행에서 행정 지체와 분열을 초래함에 따라 당 조직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3. 퇴행기와 당 의사결정과정

제8차 전당대회와 함께 당 의사결정과정의 절차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 우선 당헌의 개정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당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조직에서 일하는 당원들의 자격조건, 각종 당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관할권, 당원의 자질 검증에 대한 원칙 등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규정 조항들을 신설 보완하였다.

제8차 전당대회에서 보인 이러한 발전은 당이 그 동안의 비밀주의적 성향을 줄이고 훨씬 투명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채택한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언론 매체들이 당의 현안에 대한 토의과정을 공개하고, 중앙 및 지방 당 회의에서 나타난 이견들을 개진하며, 띤 급 후옌(huyen 縣)급 당위원회의 관료적

이며 비효율적인 성향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었다. 제8차 전당대회의 정치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야기된 논란에서 경험하였듯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은 보다 비판적인 과정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는 당 중앙 기구에 의한 선동과 협상이 여전히 비중있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 조직이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드러내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예로써, 1995년 12월 당 기관지 년 전은 곧 다가올 전당대회의 준비과정을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Stern 1997: 472).

그러나 민주적 집중제나 집단주의적 만장일치제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유지는 새롭게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접어들어 베트남은 국내 경제의 성장 지속이라는 과제이외에도 세계 경제 질서내 편입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갖게 되었다. ASEAN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회원국으로서 베트남은 2005년까지 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세계시장의 확대는 새로운 경제 구조의 조정과 발전 전략을 요구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어 온 미국과의 통상체결문제는 문제해결을 위한 단초에 해당되었는데 이에 대한 베트남 당 지도층의 의사결정방식은 베트남 정치권이 여전히 경제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 사안에 대해 당내 개혁파와 수구파는 오랜 대립을 보여 왔고 또한 정치국의 만장일치제 고수는 여러 차례 무역협정체결을 위한 기회를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였다(Quan Xuan Dinh 2000: 366).

VI. 결론

1997년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막대한 사회 심리적 위축감을 심어준 재정 경제 위기는 베트남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왔다. 주변 국가들이 태풍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순간에 오히려 베트남은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듯하였다. 이것은 베트남 동화가 불완전화였고, 지역경제와의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특수성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이전까지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997년말부터 베트남 경제도 위기 상황을 보였다. 서론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각종 경제 지표를 통해 볼 때,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도이 머이 개혁 정책을 통해 이룩한 경제 성장이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냈다. 이는 오랜 경제 발전 과정을 볼 때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초유의 위기였으나 동시에 경제 개혁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치과정면에서 본다면 1976년 재통일 이후 당 지도층이 리더쉽, 조직기구, 의사결정과정상에서 보여주었던 한계가 불러온 경제 저발전의 결과였다.

관련 자료의 부족과 충분하지 못한 이론적 틀로 인해 비록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근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힐 수는 없으나 이 글에서는 베트남 경제 발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공산당 지도층의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리더쉽의 측면에서 1976년 이후 당은 중앙과 지방 기구에서 세대교체와 전문인력 기용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이데올로그와 실용주의자간의 견해 차이는 재통일 이후 계속 요구되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체질 개선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침체기의 당 지도층은 전쟁 세대로서 그들이 정치와 경제를 모두 관장함으로써 통합된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자극기와 유지기의 당 지도층은 정치국, 중앙위원회 그리고 정부 기구에 신세대 간부와 전문 인력을 기용하였고 이들이 사회주의 경제에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할 것을 주창함으로써 침체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퇴행기의 당 리더쉽은 젊어지고 전문화되긴 하였으나 새 리더쉽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를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제 정책 입안과 수행과정에서 분열 양상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 변화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둘째, 당의 조직 기구 면에서 당내 정치국과 중앙위원회보다는 행정부나 국회에서 경제 발전을 담당할 조직이 활발히 신설되어 활동함으로써 당은 경제

발전에 관한 현안에서 점차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전시체제의 조직을 유지하려던 당의 태도는 남부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농·경공업 분야의 경제 현안에 걸림돌이 되었고 경제적인 침체를 불러왔다. 이후 이러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자극기와 유지기에는 그때까지 당이 독점하고 있던 권한을 국회와 정부에 이양하여 헌법에 입각한 체계적인 정부 조직, 행정 관할권의 국회 이전, 당 서기국 폐쇄, 당 중앙위 위원 연합을 신설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유능한 인력 충원과정에서의 당과 정부, 국회사이의 갈등으로 경제적인 퇴행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셋째, 당의 의사결정 과정 면에서는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투명화가 이루어졌다. 즉, 공산당 창당 이래 지켜져 왔던 만장일치와 비밀주의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책결정방식이 파벌간의 대립을 초래함으로써 베트남 경제 발전이라는 대의에 걸림돌이 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당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점차 변화되었는데 경제적 자극기에는 공개 토론에 의해 최종의사결정을 보완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제도화하였다. 이 제도는 당의 파벌대립을 줄이고 당 간부와 국가 관리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며 신속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의 정세로 인해 체제 안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경제 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분권화된 정책결정과정에서 위협받게 되고 때마침 득세하게 된 당 지도층내 강경파들에 의해 경제개혁과 성장이 정체되는 경제적 유지기를 맞이하였다. 경제적 퇴행기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소 개선되어 공개적인 중앙·지방 당 회의 등을 통한 비판적 여론 수렴과정을 발전시키기도 하였으나 집단주의적 만장일치제와 같은 전통적인 정책결정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새롭게 변화하는 국내의 경제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책 대응에 한계를 나타냈다.

지난 20여 년간의 베트남 경제 발전 과정에서 베트남 공산당 중심의 정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당 리더쉽, 당 조직기구, 당 의사결정과정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결국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 위기에 적절

히 대응할 수 없었다. 이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쟁세대와 전후세대,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이데올로그와 실용주의자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그들이 모두 당 지도력의 체질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1997년의 경제 위기 상황은 이 같은 잠정적인 명제 외에도 1997년을 전후한 직접적인 상황 요인과 정치계의 반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있어야 명확히 이해될 것이고 나아가 베트남 경제발전에서 정치력이 갖는 상관관계를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베트남 정당 정치, 베트남 정치 리더십, 베트남 정치 체계,
베트남 정책결정 과정, 동남아시아 비교 정치**

참고문헌

- 이한우. 2000. “도이 머이 정책이후 베트남 정치제도와 지도부의 변화.” 『베트남연구』 1: 147-180.
- Chanda, Nayan. 1984. “Vietnam in 1983: Keeping Ideology Alive.” *Asian Survey* 24(1): 28-36.
- Dan Ton That. 1993. “The Role of the Stat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construction of Vietnam.” in Mya Than (eds.) *Vietnam's Dilemmas and Options: The Challenge of Economic Transition in the 1990s*, pp. 21-50.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Donnell, John C. 1980. “Vietnam in 1979: Year of Calamity.” *Asian Survey* 20(1): 18-32.
- Duiker, William J. 1986. “Vietnam in 1985: Searching for Solution,” *Asian Survey* 26(1): 102-111.

- Esterline, John H. 1987. "Vietnam in 1986: An Uncertain Tiger." *Asian Survey* 27(1): 92-103.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sia Yearbook* 1999. 2000.
- Goodman, Allan E. 1995. "Vietnam in 1994: With Peace at Hand." *Asian Survey* 35(1): 92-99.
- Kerkvliet, Benedict J. Tria. 1995. "Rural Society and State Relations." in Benedict J. Tria Kerkvliet and Doug J. Porter. *Vietnam's Rural Transformation*. pp.65-96. Transition: Aisa and Asian America.
- Kimura, Tetsusaburo. 1986. "Vietnam-Ten Years of Economic Struggle." *Asian Survey* 26(10): 1039-1055.
- Kolko, Gabriel. 1997. *Vietnam : Anatomy of a Pea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cWilliams, Edmund. 1983. "Vietnam in 1982: Onward into the Quagmire," *Asian Survey* 23(1): 62-72.
- Pike, Douglas. 1977. "Vietnam during 1976: Economics in Command." *Asian Survey* 17(1): 34-42.
- . 1981. "Vietnam in 1980: Gathering Storm." *Asian Survey* 21(1): 84-92.
- . 1982. "Vietnam in 1981: Biting the Bullet." *Asian Survey* 22(1): 69-77.
- . 1992. "Vietnam in 1991: The Turning Point." *Asian Survey* 32(1): 74-81.
- Porter, Gareth. 1993. *Vietnam :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oci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 Quan Xuan Dinh.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Vietnam's Transformation Proces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2(2): 360-388.
- Sidel, Mark. 1997. "Generational and Institutional Transition in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Asian Survey* 37(5): 481-492.
- . 1998. "Vietnam in 1997: A Year of Challenges." *Asian Survey* 38(1): 80-90.

- Stern, Lewis M. 1997. "Vietnam's Eighth Party Congress." *Asian Survey* 38(5): 470-480.
- Thayer, Carlyle A. 1988. "The Regularization of Politics: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1951-1986." in David G. Marr (eds.). *Postwar Vietnam: Dilemmas in Socialist Development*. pp. 177-194.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 . 1995. "Mono-Organizational Socialism and the State." in Benedict J. Tria Kerkvliet and Douglas J. Porter. 1995. *Vietnam's Rural Transformation*. pp.39-64. Transition: Aisa and Asian America.
- Vo Nhan Tri. 1988. "Party Policie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Second and Third Five-Year Plans Examined." in David G. Marr (eds.). *Postwar Vietnam: Dilemmas in Socialist Development*. pp. 77-90.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 Womack, Brantly. 1996. "Vietnam in 1995: Successes in Peace." *Asian Survey* 36(1): 72-82.
- . 1997. "Vietnam in 1996: Reform Immobilism." *Asian Survey* 37(1): 78-87.
- Young, Stephen B. 1979. "Vietnamese Marxism: Transition in Elite Ideology." *Asian Survey* 19(8): 770-779.

Abstract

The Political Dynamics of Economic Development in Vietnam (1976-1997)

Kim, Jong Ouk

(Chungwoon University)

In the late 1990s,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RV) had been in trouble with its socialist market economy. However, I am not positive about the point that this situation mainly came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at that time. Rather it seems to have deep roots of the inappropriate policy of the Vietnam Communist Party (VCP).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etnam's Par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since its unification in 1975, based upon the limits of Party leadership changes, organizations, decision making process. Analyzing the political fluctuation of the Vietnamese economic development, the paper divides into 4 periods of stagnation (1976-1981), impulsion (1982-1985), preservation (1986-1995), degeneration (1996-1997).

First, the party's promotion of younger cadres and technocrats could not solve the defects of socialist market economy because of the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ideologue and pragmatist after the national reunification. The wartime Party leadership still took charge of the whole politics and economics in the stagnation period. During the impulsion and the preservation periods, it had vigorously selected new members. But the generational changes in the Party could not guaranteed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new leadership in the degeneration

period became younger and more professional but lacked strong charisma at the same time. The prolonged factionalism had disintegrated the leadership in policy making and could not cope wi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y in time.

Second, the Party had lost its influence in economic policy making for its poor sub-organizations. The preservation of the wartime organizations had tackled the economic reforms in the South and drove the national economy into the stagnated situation. In the impulsion and the preservation periods, the Party had to concede its absolute power to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s. However, such attempts could not speed up the economic transition. Rather the national economy fell down into the degeneration because the communist political system itself still had been centralized, because the sub-organizations of the Par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were not institutionalized with regards to the economic policy.

Third, the Party's efforts to decentralize the decision-making process had not been successful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The Party in the impulsion period had tried to change the tradition of authoritarian decision making process. The new style of decision making process continued in the preservation period. However, the collapse of East European communist regimes and the Chinese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late 1980s had the hard-liners come back to regain the power and the liberalization of economic reform should be halted. In the degeneration period, the Party had opportunities again to improv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permitted open debates and critical public opinion in the central and the local Party meetings. But the Party had never abandoned its tradition of collectivism and unanimity so it had been unable to respond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The Party's political approach to the economic issues had decreased its policy efficiency.

Key Words: Vietnam's party politics, Vietnam's political leadership, Vietnam's party organization, Vietnam's party decision-making process, Southeast Asian comparative politics.